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서재응·장성호 투·타 가세

KIA 질주 거칠게 없다

이번주 히어로즈·한화와 일전… 2위 향한 행보 시동

마구마구 프로야구

거침없는 KIA, 이번에는 3위 굳히기다.

주말 3연전에서 승을 싹쓸이하며 삼성 라이온즈의 거센 추격을 뿌리친 KIA 타이거즈가 3위 굳히기에 들어간다.

이번주 상대는 히어로즈와 한화 이글스. 목동구장에서 히어로즈와의 일전을 벌인 KIA는 홈으로 돌아와 한화와 주말 3연전을 벌이게 된다.

올 시즌 상대전적은 각각 3승3패, 3승1무2패로 호각지세지만 최근 전력과 팀 분위기를 생각하면 KIA의 기세가 무섭다.

서재응·이범석·한기주 등 마운드 주축 선수들의 부재 속에서도 3위까지 치고 올랐던 KIA는 마운드 재정비를 완료했다.

마무리 한기주가 7일 시즌 5번째 블론 세이브를 기록했지만 점차 구위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 서재응이 목요일 선발 출격을 준비하고 있어 마운드에 한층 숨통이 트였다.

6월을 4강의 최대 분수령으로 삼고 있는 KIA는 지난주 양현종-로페즈-윤석민-곽정철-구톰슨-양현종의 선발 로테이션을 가동했다. '미스터 선데이' 구톰슨이 등판일정을 하루 앞당겨 토요일에 출격했고, 좌완 에이스 양현종은 첫 경기와 마지막 경기를 담당했다.

두산-삼성과의 박빙의 승부를 위해 마운드 총력전을 벌인 결과는 4승2패. 두산전 6연패의 사슬을 끊었던 KIA는 무섭게 쫓아오던 삼성을 한 발 떼어놓으며 한 숨 돌렸다.

서재응의 가세로 힘을 얻게 된 KIA는 마운드 전력이 불안정한 히어로즈와 한화와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프로야구 중간순위 (8일 현재)

순위	구단	승	패	무	승률	연속
1	SK	34	18	4	0.607	2승
2	두산	31	19	2	0.596	2패
3	**KIA**	**30**	**23**	**3**	0.536	**3승**
4	삼성	26	29	0	0.473	3패
5	히어로즈	23	30	1	0.426	2승
6	LG	23	30	3	0.411	2패
7	한화	21	28	3	0.404	2패
8	롯데	22	33	0	0.400	2승

로페즈가 가장 먼저 출격한다. KIA 투수진 중 가장 많은 이닝을 담당한 로페즈는 지난 2경기에서도 8이닝 2실점, 7과 3분의2이닝 2실점의 투구를 선보이며 2연승을 달리고 있다.

KIA 타이거즈 김종국이 7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삼성 라이온스와 홈경기에서 연장 12회말 무사 1,2루때 끝내기 안타를 치자 KIA 선수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대는 좌완 장원삼. 히어로즈의 에이스를 자처했던 장원삼은 올 시즌 5.26의 평균자책점으로 2승을 거두는데 그치고 있는 등 로페즈 쪽에 무게가 더 실린다.

이종범이 이끌고 있는 타선의 뒷심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7일 테이블 세터로 나선 '백전노장' 이종범·김종국의 동점타에 이은 역전타로 시즌 첫 끝내기의 감격을 누린 KIA의 타선은 최근 고참급 선수들이 주도 하고 있다.

지난주 2천500루타, 500도루에 이어 1천득점 고지까지 밟은 이종범은 최근 5경기 타율이 0.421에 이르고 있다. 타점도 4점을 기록했다.

최희섭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중심타선에 힘이 빠졌지만 적재적소에 터지는 김상현의 매서운 타격은 여전하다. 5경기에서 5할 타율로 7득점을 올린 김원섭의 만점 활약도 돋보인다.

'스나이퍼' 장성호도 복귀한다. 지난달 18일 왼쪽 팔꿈치 통증으로 재활군에 내려갔었던 장성호는 8일 1군에 합류했다. 장성호의 가세로 중심타선도 한층 견고해지고, 고행군을 이어온 외야에도 여유가 생기게 됐다.

노장들의 노련미속에 나지완·안치홍 등 젊은 선수들의 패기가 더해진다면 3위를 넘어 2위를 향한 KIA의 행보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제16회 무등기 고교야구

D-6일

참가팀 전력 분석

제16회 무등기 고교야구대회가 오는 15일부터 광주무등경기장야구장에서 열린다. 서울팀들의 강세속에 광주 동성고를 필두로 한 지역팀들의 반격이 아마 야구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15회 대회의 세광고-동산고경기. 〈광주일보 자료사진〉

서울 독주냐 지방 반기냐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는 숨막히는 승부가 펼쳐진다.

오는 15일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제16회 무등기전국고교야구대회의 한판 대결이 시작된다.

15일 오후 1시 광주동성고와 강릉고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8일간의 열전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20개팀이 출사표를 던졌다.

올 세차례 전국대회 서울팀 우승…청원고 "이번엔 우리"

호남 자존심 동성·진흥 대항마로…충청 공주고도 가세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가장 많은 6개팀이 참가한다.

올 시즌은 서울팀들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앞서 열린 세 차례의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덕수고·충암고·신일고 등 서울팀이 우승을 독차지했다.

지난해 무등기 우승팀 청원고를 비롯해 대통령배 4강의 경기고와 휘문고·장충고·배명고·선린인터넷고는 투·타의 안정된 전력으로 서울의 우승 독주를 이어나가겠다는 각오다.

특히 청원고는 지난 대회 MVP인 투수 박상옥을 전면에 내세워 대회 2연패를 노리고 있다.

서울팀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한 대항마로는 광주팀들이 우선 손꼽힌다. 이번 대회에는 동성고와 진흥고가 호남 야구의 자존심을 걸고 출격한다.

동성고는 우완 에이스 유경국과 좌완 에이스 이영기를 내세워 결승 진출을 벼르고 있다. 진흥고도 김정훈·임기준으로 이어지는 투수진으로 3년만에 대회 패권을 되찾겠다는 각오다.

이외에도 부천고와 함께 경기지역을 대표해 나서는 야탑고의 선전이 예상된다. 옛 부산상고인 개성고는 경남 지역의 자존심을 걸었다.

이번 대회에는 개성고·부산고·마산고가 경남을 대표한다. 순천 효천고와 군산상고는 호남 야구의 힘을 보여줄 계획이다. 충청지역에서는 세광고·공주고가 출사표를 던졌다.

구미전자공고는 경북을, 인천고는 인천의 명예를 놓고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강릉고도 먼 길을 나설 채비를 끝냈다.

KIA 조찬관 스카우트 팀장은 이번 무등기는 고교야구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팀장은 "올 시즌 특별한 '초고교급' 선수가 없는 만큼 투·타의 핵심 선수에 의해 경기의 흐름이 좌우되기 보다는 작전에 의한 공격 그리고 실수 없는 팀플레이에 따라 우승기의 향방이 결정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아마 선수다운 열정과 패기, 그리고 감독들의 작전에 승패가 가릴 짜릿한 고교야구 대전이 아마 야구팬들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

'세리키즈' 김인경, 세리언니 꺾다

스테이트 팜 우승…LPGA 통산 두번째

박세리 2위…코리언 낭자 5명 '톱10'

'박세리 키즈' 김인경(21·하나금융)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스테이트 팜 클래식에서 개인 통산 두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김인경은 8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팬더크리크 골프장(파72·6천74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를 몰아쳐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정상에 오르며 상금 25만5천달러를 받았다. 김인경으로서는 작년 10월 롱스드럭스 챌린지 이후 8개월만에 우승이자 올 시즌 한국여자군단의 세번째 우승.

박세리(32)도 6언더파 66타를 치며 김인경과 경쟁을 펼치며 2년만의 우승컵을 노렸지만 16언더파 272타로 1타가 모자란 2위에 머물러 연장전에 들어가지 못했다. 시즌 중반에 들어서면서 더욱 날카로운 샷을 날리고 있는 한국 선수들의 독무대였다.

공동 선두로 나섰던 크리스티 커와 크리스티 맥퍼슨(이상 미국)이 전반에 타수를 줄이지 못하거나 무너지는 사이 김인경과 박세리, 한희원(31·휠라코리아)의 샷이 불을 뿜었다.

커는 공동 6위(14언더파 274타), 맥퍼슨은 공동 18위(10언더파 278타)로 떨어졌다. 전반에 무려 4타를 줄인 박세리는 13번홀(파5) 버디에 이어 16번홀(파5)에서 벙커에서 친 세번째 샷을 홀에 붙여 다시 1타를 줄이면서 단독 선두에 올라 2년만의 우승에 다가서는 듯 했다.

'엄마 골퍼' 한희원도 7언더파 65타를 몰아치며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이지영(24)과 함께 공동 3위(15언더파 273타)로 먼저 경기를 끝냈다.

하지만 한국 선수끼리 우승 경쟁에서 뒷심을 발휘한 것은 김인경이었다.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4위에서 출발한 김인경은 전반에 3타를 줄이며 추격하다 후반에 버디 4개를 추가하는 집중력을 보였다. 김인경은 16번홀(파5)에서 2m짜리 버디 퍼트를 성공시킨데 이어 17번홀(파3)에서도 다시 1타를 줄였고 18번홀(파4)에서 가볍게 파를 잡아내며 단독 선두로 경기를 마쳤다.

김인경이 2009년 6월 7일 미국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LPGA 스테이트 팜 클래식 골프 토너먼트 우승후 트로피를 들고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경이 홀아웃한 뒤 낙뢰 주의보가 내려 경기가 20분 동안 중단되기도 했지만 김인경을 추월할 선수는 없었다.

다른 선수의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우승을 확인한 김인경은 "전반에 버디 3-4개 정도 잡고 후반에 기회를 노려보려고 했다. 뜻밖에 후반에도 많은 버디가 나왔다"며 "17번홀 그린에서 어려운 라인이었는데 버디 퍼트가 들어가 우승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세리는 2년만에 찾아온 우승 기회를 놓쳤지만 스코어카드 접수처에서 김인경의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해 줬다. 지은희(23·휠라코리아)는 마지막날 9언더파 63타의 맹타를 휘두르며 공동 6위(14언더파 274타)로 도약하는 등 한국 선수 5명이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우승 경쟁에 뛰어 들었던 신지애(21·미래에셋)는 2타를 줄이는데 그쳐 12위(13언더파 275타)에 자리했고 위성미(20·나이키골프)는 공동 54위(4언더파 284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골프황제' 우즈, 4타 뒤집기 우승

PGA 메모리얼 토너먼트

최경주 3언더파 13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사진)가 무릎 부상 복귀 후 두 번째 우승도 역전 드라마로 장식하며 US오픈 2년 연속 우승 전망도 함께 밝혔다.

우즈는 8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뮤어필드 빌리지 골프장(파72·7천265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7개에 이글 1개, 보기 2개를 묶어 7언더파 65타의 맹타를 휘둘렀다.

3라운드까지 선두에 4타 뒤진 공동 7위였던 우즈는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로 3월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이후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15번홀(파5) 버디로 1타 차 단독 선두로 나섰다가 16번홀(파3) 보기로 데이비스 러브 3세, 조너선 비어드, 짐 퓨릭(이상 미국)과 함께 공동 선두로 잠시 물러선 우즈의 뒷심이 돋보였다.

우즈는 17번홀(파4)에서 2.7m 거리의 버디 퍼트를 넣어 다시 1타 차 단독 선두에 오른 뒤 마지막 홀(파4)에서도 170m 거리에서 날린 두 번째 샷을 홀 35㎝에 바짝 붙여 한 타를 더 줄이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최경주(39·나이키골프)는 3언더파 285타로 단독 13위에 올라 2월 노던 트러스트오픈 공동 3위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하진만 톱10 진입에 1타가 더 많아 아쉬움을 남겼다. 나상욱(26·타이틀리스트)은 1오버파 289타로 공동 34위,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은 3오버파 292타가 돼 공동 41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